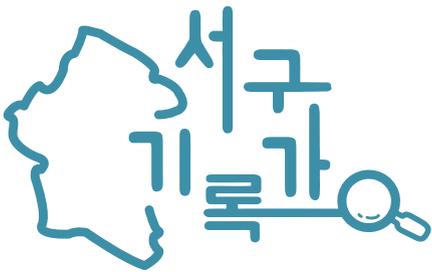


2023년 「서구기록사업」

2023년 가을, 인천 서구 청라 호수공원



2기

고세자·YAMADA TAKAKO·유새늘
유현옥·이수진·채효영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23년 「서구기록사업」

2023년 가을, 인천 서구 청라 호수공원



2기

고세자·YAMADA TAKAKO·유새늘
유현옥·이수진·채효영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23년 「서구기록사업」

2023년 가을, 인천 서구 청라 호수공원

서구기록가는 서구민을 대상으로 서구 지역의 일상을 기록하는 공동체입니다.

매년 기록가들의 논의를 거쳐 서구 지역 중 한 곳을 선정하고 그곳을 기록으로 남기는 맵핑북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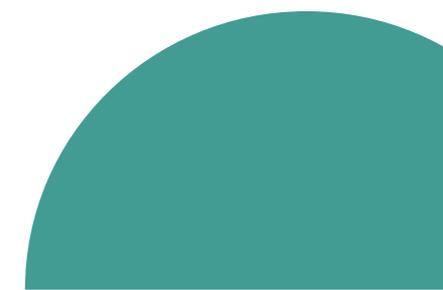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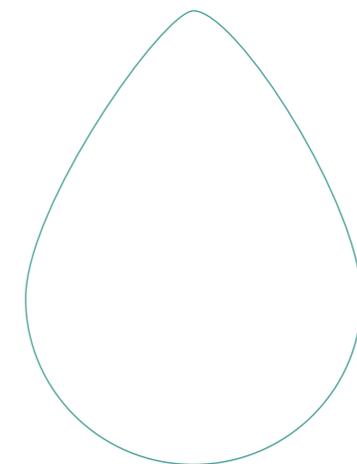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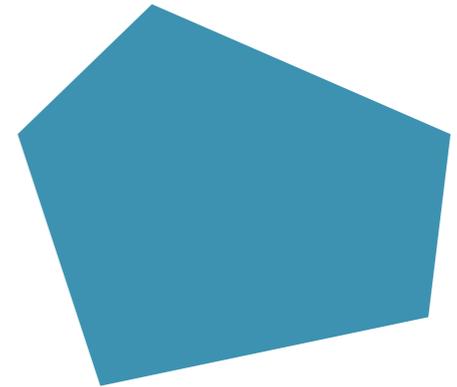
- 『2021년 겨울 인천 서구 검단』
- 『2022년 가을, 인천 서구의 섬 세어도』
- 『2023년 가을, 인천 서구 청라 호수공원』

- 공 촌 천 , 심 곡 천 ①
- 청 라 호 수 공 원 ②
- 야 외 음 악 당 ③
- 음 악 분 수 ④
- 청 라 루 ⑤
- 레 이 크 하 우 스 ⑥



목 차

01	고세자 - 공촌천, 심곡천 공촌천을 이야기하다 심곡천으로 가보실까요?	04
02	YAMADA TAKAKO - 청라호수도서관 청라호수도서관	30
03	유새놀 - 야외음악당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	40
04	유현옥 - 음악분수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	50
05	이수진 - 청라루 청라호수공원의 청라루 더글로리 바둑공원 청라호수공원 현대적 건물 레이크하우스 수상레저 체험 청라 한국 정원 청라에 착륙한 달과 토끼	56
06	채효영 - 레이크하우스 인천청라호수공원의 현대와 과거가 함께 공존하는 쉼터 <레이크하우스> 방문기	64
07	카페 리본을 소개합니다	80



2023년 서구기록사업

2023년 가을, 인천 서구 청라 호수공원

01

고세자
공촌천, 심곡천

•

공촌천을 이야기하다
심곡천으로 가보실까요?



공촌천을 이야기하다

제가 공촌천이라는 이름을 접한 것은 30여 년 전입니다. 강화를 오가며, 검암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며 공촌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공촌천은 공촌동에서 발원하여 검암동을 거쳐 경서동과 연희동 그리고 청라를 거쳐 유수지에 이르러서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지방하천입니다.



공촌3교 앞쪽으로 보이는 공촌4교와 공촌천유수지 풍경입니다. 이제 연희공원을 지나 호반서밋의 아파트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공촌천도 제 모습을 나타내며 주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벚꽃이 피어나는 초봄 공촌천 상류에 가면 이런 환상적인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그대로의 농로를 걸어보며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공촌1교에는 돌 징검다리도 있어서 가끔은 그 징검다리로 산책나온 주민들도 보게 됩니다. 창포꽃과 봄꽃들이 만발할 때는 정말 낭만이 가득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이곳까지는 천의 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공촌2교를 지나는 길목에 많은 새들이 날아듭니다. 왼쪽편에 보이는 건물이 LH청라사무소이고 사진으로는 공터로 보이지만 지금은 복합문화시설이 설립되어있습니다.



심곡천을 건너보면 화장실이긴 한데 내가 잘못 찾았나 할 정도로 아름답게 설계된 화장실을 만나게 됩니다. 화장실이 예술감이지요.



공촌천도 역시 자전거 도보 길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길의 도로명도 잘 표기해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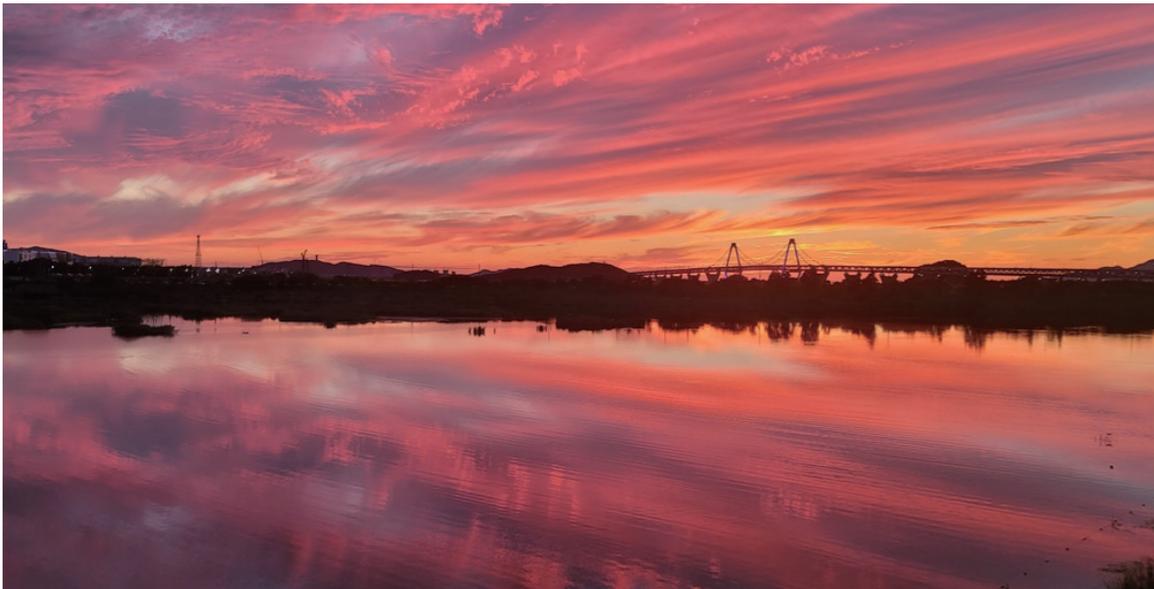
가을정취를 맛보면서 낙엽진 도로를 걷고 건다보면 호수공원과 연결된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 호수공원도 한 바퀴 산책하고 나면 만 보는 충분히 넘겼겠지요



이제 본격적인 자연체험을 할 장소에 다다르게 됩니다. 공촌천 유수지 앞에 보이는 다리는 공촌4교이고 왼쪽은 체육고등학교, 오른쪽은 청라국제도시입니다.



이제 막 아침잠에서 깨어나는 공촌천의 아침 풍경입니다. 도시도 이제 활기를 찾게 되겠지요.



하루를 마치고 일몰시간에 맞추어 공촌천에 나가면 이런 환상적인 일몰풍경도 보게 됩니다. 호흡이 저절로 멈추는 시간.



백할미새도 보이고





백할미새들이 갯벌지렁이 등을 잡아먹느라 열심히입니다. 유유상종이러지요?
갈매기는 갈매기끼리, 오리들은 오리들끼리, 가마우지와 백로들도 끼리끼리.



한가로운 시간
가마우지들의 횃대차지 싸움이 치열합니다. 소리소리 지르고 발로 차고 ㅎㅎㅎ



고고한 백로는 싸움줄 모를 것 같지만
웬걸요, 서로 목을 길게 빼고 기싸움을 하다가 왼쪽 백로가 줄행랑을 치네요.



겨울 철새인 큰기러기떼들이 공촌천에서 유유히 휴식을 즐기는 모습은 장관입니다.



물닭들도 이곳에서는 여유롭습니다. 점점이 비오리떼들의 모습도 장관이고요.



큰기러기들은 갈땃잎이나 뿌리를 먹는군요. 애네들도 싸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녀석이 줄기를 건져냈는데 옆에 있던 녀석이 같이 먹자고 주둥이로 잡아당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오늘도 공촌천은 고요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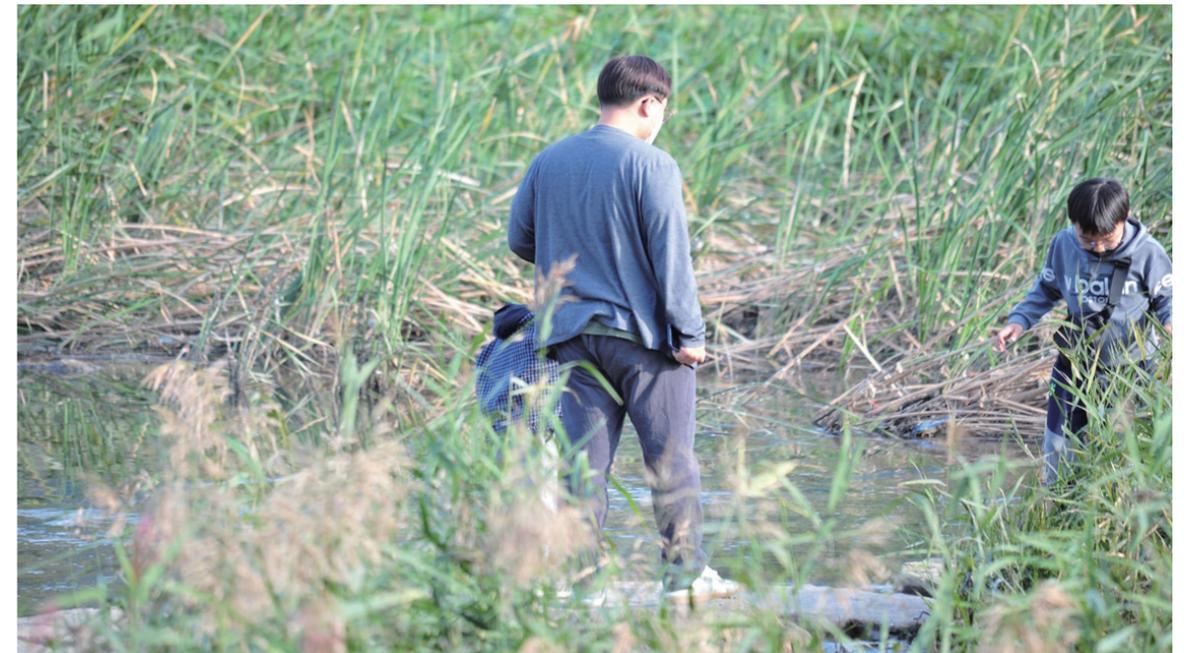
○
심곡천으로 가보실까요?

심곡천으로 가보실까요?



심곡천 돌 징검다리

가정동에서 자이아파트쪽으로 연결된 심곡천 진입로는 산책도로와 자전거라이딩 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남측면은 산책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상단쪽으로는 산책도로만 조성되어 있고 북측면에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우선 돌징검다리를 만납니다.



돌징검다리는 선교중앙감리교회 인근에 있고 (새로 생긴 다리가 있어 요즘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 자이아파트 앞쪽에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더불어서 일부러 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많은 주민들을 보게 됩니다. 추억을 소환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함인가 봅니다.



심곡천 상류에서는 발길을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청둥오리들과 백로 왜가리 가마우지 등이 눈길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4계절 내내 온갖 조류들이 날아듭니다. 어미 오리가 새끼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류에서 새끼들을 일찍 데리고 상류로 올라와서 오후면 다시 데리고 하류로 내려가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제 횃대에서 휴식하는 가마우지의 모습을 보실까요?

가마우지들은 먹이를 잡느라 쉬지 않고 잠수하기 때문에, 이들이 날개를 말리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횃대가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심곡천은 상류쪽이 넓지않아서 횃대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센 물살에 밀려내려온 경계목이 물속에 박혀서 이제는 가마우지의 횃대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이 오가는 주민들의 눈길을 잡아놓습니다.



이제는 먹이생활 모습을 보실까요? 인내심을 발휘해 지켜보면 이런 멋진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초은중학교 앞에 설치된 부표로 가보겠습니다. 쓰레기가 밀려 내려가지 말라는 설치물인데 이제 이곳은 거북이들과 새들의 휴식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로들의 우아한 자태도 보아야 나중에 후회 안 하시겠죠?

이렇게 건다가는 하루가 걸려도 다 못 걸으시겠지요?
그래도 보실 건 보시고 가야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이런 환상적인 풍경도 만날겁니다.



다음편에 다시 함께 걸어보시자구요.

2023년 서구기록사업

2023년 가을, 인천 서구 청라 호수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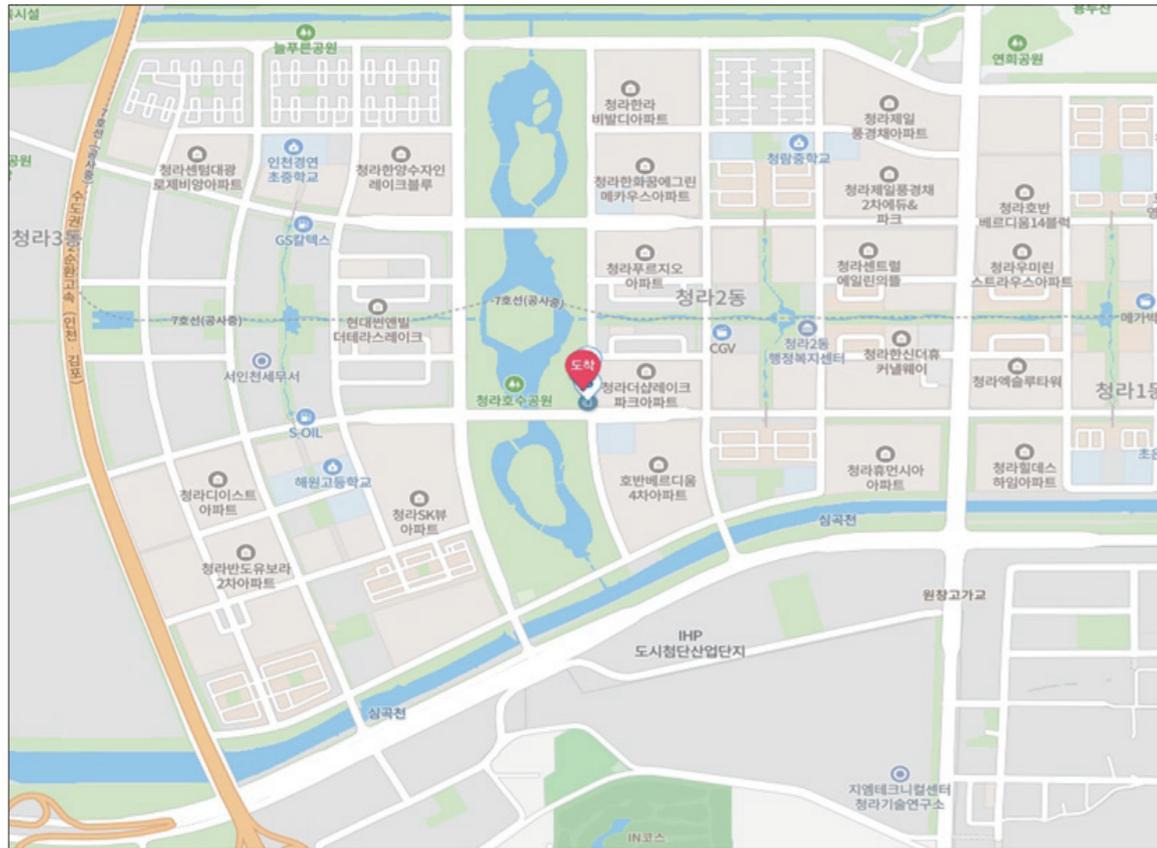
02

YAMADA TAKAKO
청라호수도서관

•

청라호수도서관

○
청라호수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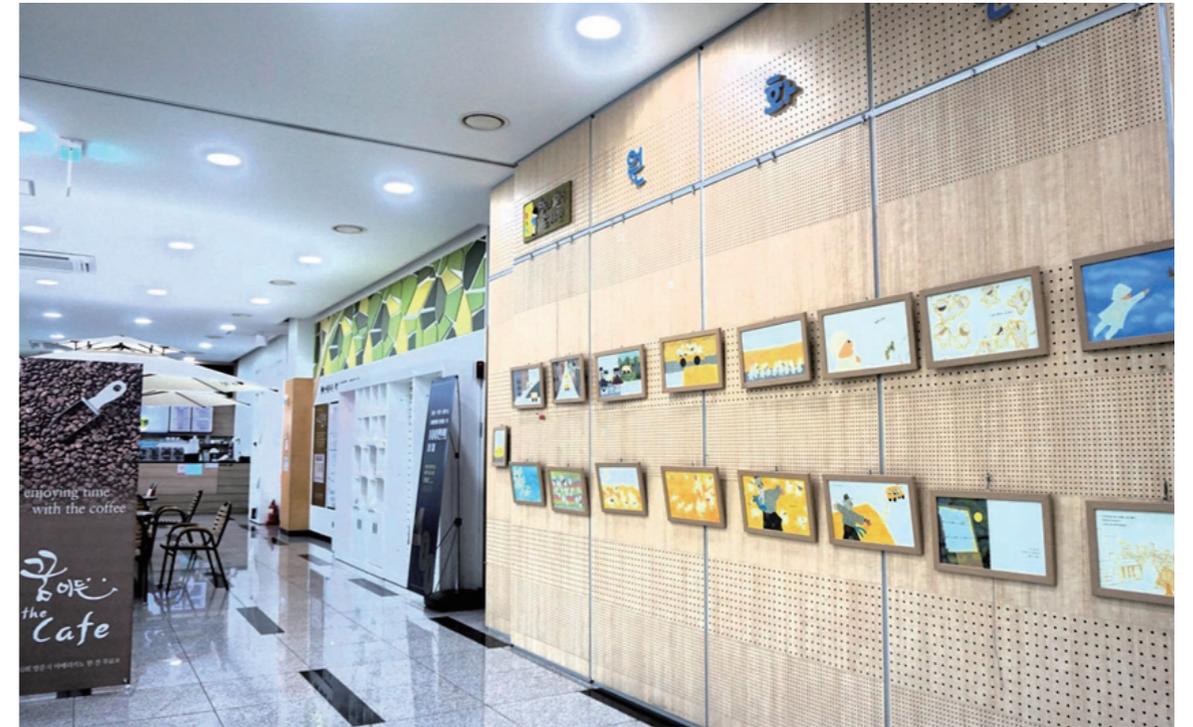
연 락 처 032-563-9580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59 (경서동, 청라호수도서관(청라제2공공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michuhollib.go.kr/index.jsp>
휴 관 일 매주 금요일 및 법정공휴일
이용시간 [디지털실 및 참고·연속간행물실] 평일 09:00~18:00 / 주말 09:00~18:00
[일반자료실] 평일 09:00~22:00 / 주말 09:00~18:00
[어린이자료실] 평일 09:00~18:00 / 주말 09:00~17:00

주 차 주차 가능 (지상29대/장애인2대/경차8대) 차량 5부제 및 요일제 실시
이용시간 09:00~22:00 (평일), 09:00~18:00 (주말), 휴관일 미운영

장애인 주차 안내 장애인 주차장 있음 (2대)_무장애 편의시설
접 근 로 출입구까지 턱이 없어 휠체어 접근 가능함
출 입 통 로 주출입구는 턱이 없어 휠체어 접근 가능함 (수동문)
엘 리 베 이 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있음
화 장 실 장애인 화장실 있음 (1,2,3층)
점 자 블 록 점자블록 있음 (화장실, 엘리베이터)_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유 도 안 내 설 비 점자손잡이 있음 (계단손잡이)
수 유 실 있음
영 유 아 가 족 어린이자료실 있음



청라호수도서관 위치는 청라호수공원 앞측(청라더샵레이크파크아파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업무와 주거, 산업이 공존하는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에 위치한 중심 도서관으로서 청라국제도서관과 더불어 청라국제도시의 공공도서관이기도 합니다.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중심 도서관으로 지식정보,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청라호수도서관은 2015년 6월 29일에 개관했습니다. 총 3층 건물로 1층에는 주차장과 안내실과 전시코너가 있고, 그리고 아담한 카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자료실, 공연장 및 세미나실 등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입구 부근에서 눈에 띄는 곳은 요즘 공공도서관에서 편리성을 최대로 확장하고 있다는 '스마트 도서관' 입니다.
폐관 후에도 이 기기를 통해서 무인으로 예약한 도서를 받기도 하고, 대출 반납이 가능한 곳이지요.



2층은 일반자료실과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3층에는 디지털실 및 참·연속간행물실, 세미나실과 관장실, 사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지어진 도서관이라서 그럴까요? 학생 등이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은 따로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원래 휴게실인데도 아예 여기서 공부하겠다고 자리 잡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안내

배부기간 : 2023.4.17.(월) ~소진시

배부장소 : 어린이자료실

**배부시간 : 월~목 9시~18시
토~일 9시~17시**

배부대상 : 만0세~초등2학년

1단계 : 북스타트(0~18개월)
2단계 : 북스타트플러스(19~35개월)
3단계 : 북스타트보물상자(36개월~취학전)
4단계 : 북스타트책날개(초등1~2학년)

**준비물 : 아동명의 책이음회원증
등본(발급3개월이내)
보호자신분증**

**유의사항 : 단계별 1회 수령
(타도서관 중복 수령 불가)**

문의 : 563-9580

만4세미만 회원증 발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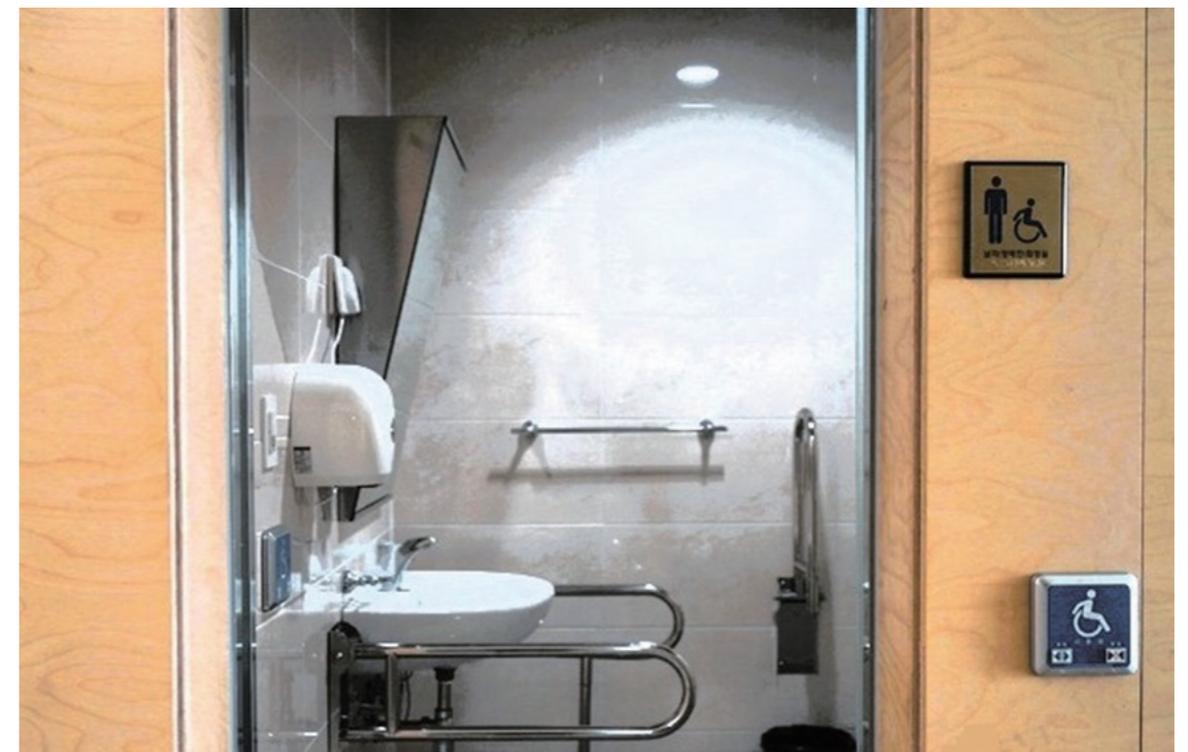
1. 인증수단(아동명의휴대폰or아이핀)을 통해 홈페이지 가입
2. 등본(3개월이내), 보호자신분증을 지참하여 2층 일반자료실 방문

인천광역시청라호수도서관

〈2023년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안내〉

대상 : 0세~초등2학년(1~4단계)
4.17.(월)부터 어린이자료실에서 배부합니다.

★ 배부시 필요한 「아동 명의 회원증」 미리 발급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 참고해주세요.



사진출처 : 한국관광공사

장애인 위한 시설도 갖춘 청라호수도서관.
주변 보도에는 자전거용 도로가 신설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안심해서 다닐 수 있는 이런 도서관에서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해지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라호수공원을 구경할 겸, 책도 읽고 쉬는 시간도 가져 보면 어떨까요?

2023년 서구기록사업

2023년 가을, 인천 서구 청라 호수공원

03

유세놀
야외음악당

•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



청라호수공원은 청라국제도시의 한가운데 위치한 인공호수공원이다. 공원의 총면적은 690,573㎡로 상당히 넓은 공원이라 할 수 있다. 공원은 다양한 테마에 따라 구역별로 조성되었는데 야외음악당은 그 중 플라워뮤직아일랜드라는 섬 안에 있다. 공원 가운데 호수가로 이어진 4.3km의 산책로를 따라가면 그 가운데 3개의 인공섬이 또 있어 플라워뮤직아일랜드가 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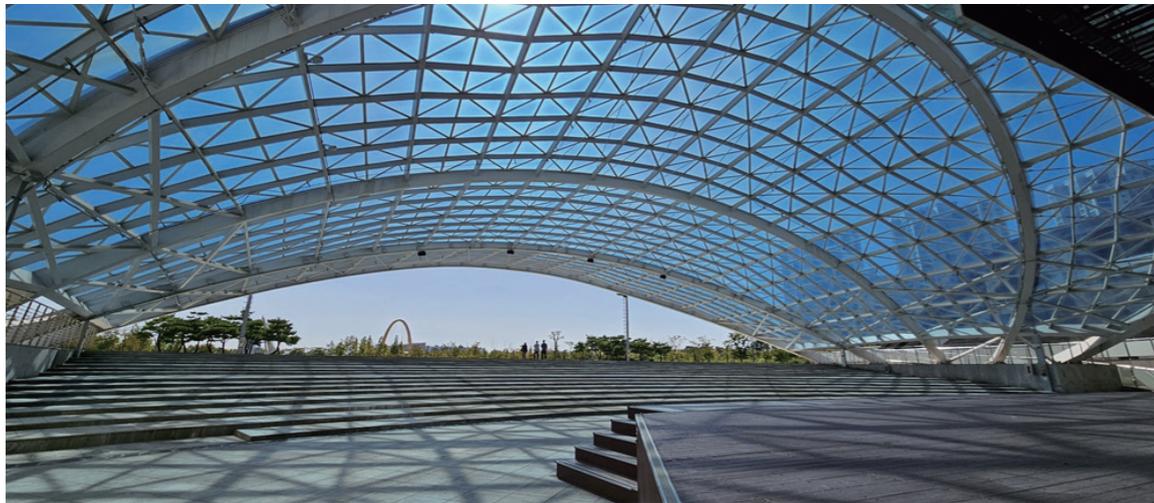
호수공원의 남쪽에 위치하며 3개의 다리로 이어져 있다. 플라워뮤직아일랜드 서쪽에는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찾는 환상의 숲 피노키오 놀이터와 넓은 운동장처럼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멀티플라자가 있어 나 역시 가족들과 자주 찾는 곳이다. 오늘은 청라 1,2동에서 이어진 동쪽 다리를 통해 건너가 보았다.



다리 너머 야외음악당의 지붕이 보인다. 실제로 다리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라 야외음악당은 보기보다 가깝다.



처음 야외음악당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이 지붕이 없었다. 그래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릴 때나 갑자기 비가 내릴 땐 공연을 관람하기가 어려웠다. 지금은 이 날개 같은 아름다운 지붕이 생기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에도 대비할 수 있고 투명창을 통해 환하게 자연광을 비추면서도 그늘이 생겨 편안히 공연과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 저녁이 되면 야간 조명과 함께 알록달록한 조명이 아름답게 연출되기도 한다. 공연이 열릴 때면 객석을 감싸고 있는 이 지붕의 조명 덕분에 더 흥분 분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



계단식의 넓은 데크형 객석이라 많은 관객을 한번에 수용할 수 있다. 객석 뒤로는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 그 위에서 관람하기도 하고 그냥 지나다가 둘러보던 중 멈춰서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또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은 어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공연을 즐기는 이도 있고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공연을 즐기는 관객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는 실내공연장보다 탁 트인 야외공연장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다.



넓게 펼쳐진 잔디밭에서는 특별히 공연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휴식공간을 찾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가 공연과 함께 열리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공연이 없는 날에도 이곳을 지나다 보면 시시각각 여러 추억이 그려지며 마음을 설레게 한다.



야외음악당 무대 뒤편으로는 공연자들을 위한 연습실이나 대기실, 분장실이 있으며 커뮤니티공간이라 할 수 있는 休청라문화누리소도 마련되어 있다. 또 로비는 청라국제도시와 청라호수공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야경 사진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공원을 바라보며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전망카페가 나온다.



이 카페의 특별한 점은 바로 어르신 바리스타님들의 커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카페의 이름이 Re:born인 것도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제2의 인생도전을 하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장소이기도 하다. 어르신들이 직접 구운 쿠키와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담아 더욱 입맛을 당기는 수제음료 메뉴들이 가득하다. 현재 카페 리본에는 <서구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서구가 갤러리> 전시중으로 서구작가의 미술작품도 함께 감상해 볼 수 있다.



원래 카페에 들어갈 때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공연장 무대 옆을 따라 뒤로 올라오는 완만한 경사길이 있어 공원의 풍광을 즐기면서 오고갈 수 있다. 전면창으로는 야외공연장 뒤편으로 이어진 호수공원의 전망을 바라볼 수 있다. 창 한쪽에는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글귀도 하나씩 적혀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야외공연장 뒤편의 다리를 건너가면 호수공원의 가장 인기코스인 음악분수대쪽으로 이어진다.



다시 바깥을 나와 야외공연장 잔디를 걷다보면 커다란 조형물도 나타난다.



조형물 뒤로는 '맥도날드 다리'라는 별명이 붙은 아치형 조형물이 서 있다. 거기에 세 번째 다리가 있어서, 야외음악당이 위치한 플라워뮤직아일랜드로 들어올 수 있다.



이 서쪽의 다리 이름은 플라워3교인데 놀이터 방향에서 이어지는 다리라 그런지 경쾌하고 발랄하게 장식해 놓았다. 저녁이면 음표 모양의 알록달록한 조명이 주변을 밝힌다. 다리는 구름다리 형태로 발을 땄 때마다 흔들리는 기분이라 아이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청라호수공원의 야외음악당을 중심으로 한 플라워뮤직아일랜드는 각각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많다. 호수공원을 하루에 다 돌겠다는 욕심은 내지 않아도 된다. 언제나 찾아와 한 곳 한 곳 충분히 느끼면서 넓은 공원을 다 돌아볼 날을 꿈아보는 일도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서구기록사업

2023년 가을, 인천 서구 청라 호수공원

04

유현옥
음악분수

•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



1. 음악분수 표지판



청라호수공원 제4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느릿한 걸음으로 10여분 정도만 걸어가면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라고 쓰인 표지판이 나온다. 호수공원답게 표지판도 푸른색으로 테두리를 씌우고 흰바탕에 쓰인 글씨 또한 파란색이다. 이 표지판을 보니, ‘드디어 내가 찾던 곳에 왔구나’하는 안도감이 느껴진다. 버스를 타고 와도 걷는 거리는 비슷하다. 버스에 따라 청라우미리아파트나, 호수공원음악분수 정류장에서 내려 10여분 정도 걸어오면 표지판을 만날 수 있다. 음악분수로 오는 길도 예쁘니, 지루할 틈이 없다.

2. 음악분수 안내문



표지판 바로 옆에는 [음악분수 제어실]이 있다. 공원에 있는 제어실은 그마저도 예술작품인 양 기하학적 무늬를 뽐낸다. 제어실 위에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안내하는 LED 안내판이 있어 음악분수 운영일과 운영시간을 알려준다. 사전정보 없이 이 곳에 왔어도 이 안내문을 보면 음악분수 공연시간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3. 음악분수 관람석



음악분수 관람석은 2종류이다. 제일 위쪽에 있는 테이블 석과 그 아래로 넓게 펼쳐진 스탠드형 좌석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테이블 석은 항상 인기가 많다. 특히 음악과 함께하는 야간시간대에는 인기가 더 많아, 항상 만석이다. 그렇기에 테이블 석에 앉아 감상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일찍 도착해야 할 것이다. 음악분수 쇼를 진행하지 않는 평일 낮시간을 택해서 간 우리는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 있었다.

4. 호수공원 음악분수



공연 시간이 되면 이곳에서 분수가 올라온다. 야간에는 노래에 맞춰 바뀌는 조명과 분수가 장관을 이룬다. 촬영을 위해 공연이 있는 시간을 피해 갔건만, 그 때문에 음악분수에서 분수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 숨을 죽이고 다음에 있을 공연을 준비하는 분수의 시작점들이 아직은 고요하다. 호수에 비친 고층아파트와 낮게 드리운 구름이 고즈넉한 호수를 빛내고 있었다.

2023년 서구기록사업

2023년 가을, 인천 서구 청라 호수공원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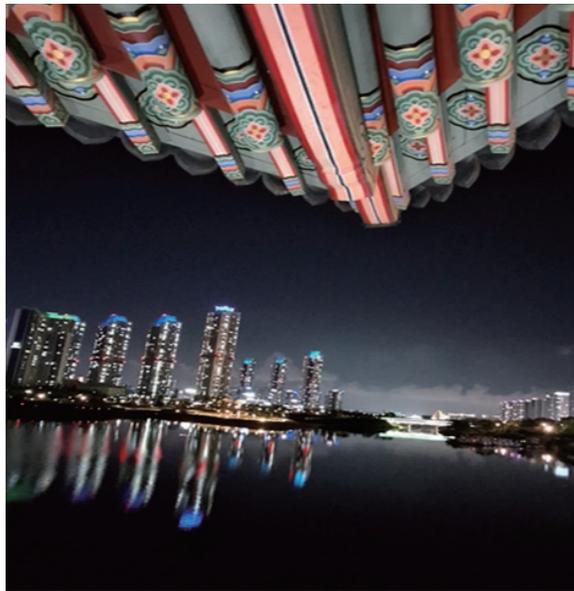
이수진
청라루

•

청라 호수공원의 청라루
더 글로리 바둑공원
청라 호수공원 현대적 건물 레이크하우스
수상레저 체험
청라 한국 정원
청라에 착륙한 달과 토끼



청라 호수공원에 오랜만에 왔다. 호수 주변을 걷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경험이다. 오늘은 더욱 특별히 청라 호수공원 북쪽 주변을 아이들과 함께 둘러 보았다. 청라 호수공원 북서쪽 끝에는 가로 50미터, 세로 1미터 정도의 커다란 간판이 세워져있다. 밤이 되면 이 간판은 형형색색으로 변해 청라 호수공원 인증샷을 남기기 제격인 장소이다.



청라루2층에서 찍은 호수 공원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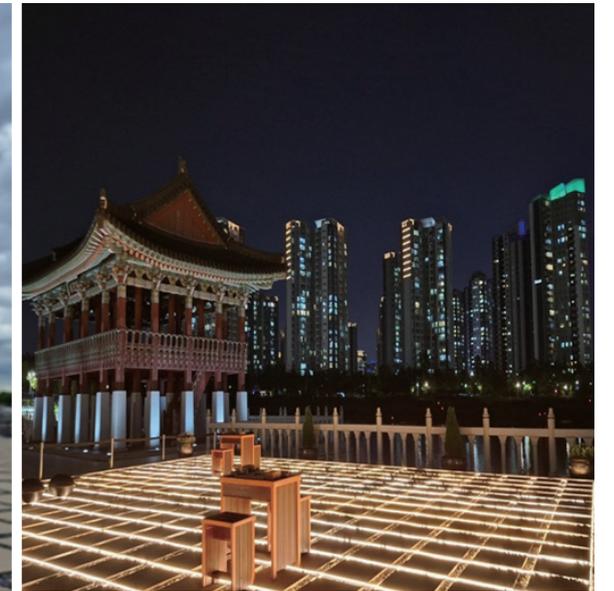


구름이 놀러 온 청라루

간판을 따라 들어가면 호수공원의 보석 같은 곳 청라루가 보인다. 청라루는 한국의 자연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경복궁의 경회루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2층 누각에 올라가면 호수 위에 반사된 하늘, 나무,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건너편 아파트까지 한눈에 보인다. 특히 밤이 되면 처마 밑에 보이는 호수와 아파트의 야경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호수의 평화로운 물 면이 담은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의 그림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더글로리 바둑공원, 누가 유리할까?



청라루와 바둑공원의 야경

청라루 밑에 내려오면 얼마 전 상영했던 더 글로리 바둑공원이 있다. 바둑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꿈같은 장소일 것이다. 바둑경기에서 벌어지는 전략적 두뇌 싸움을 떠올리는 동시에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해보게 되는 특별한 장소이다. 바둑공원 안에는 바둑판과 돌, 의자, 그림 같은 경치가 함께 있다. 커다란 흰 돌과 검은 돌이 커다란 바둑판 안에서 대국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 오늘의 바둑판 상황을 보면 오목으로 하면 검은 돌이 유리하고, 바둑으로 하면 흰 돌이 유리한 것 같다. 어린 시절 바둑은 우리에게 큰 재미를 주는 보드게임이었다. 5개의 돌을 연속으로 놓으면 이기는 오목이라든가 상대편 알을 바둑판 밖으로 내보내는 알까기가 생각난다. 해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 했지만 바둑공원 안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해가 지면 바둑판 위에 놓인 돌들은 조명 아래 빛나고 흰 돌과 검은 돌의 대비가 뚜렷해서 청라루와 함께 미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밤하늘에는 별빛과 달빛 아래서 연인들이 바둑을 즐긴다면 로맨틱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청라 호수공원 현대적 건물 레이크하우스



1층 편의점 포토존

편의점에 놀러 온 오리

2층 더다이브 카페테라스 의자

바둑공원 옆으로 2층에는 레이크하우스가 있다. 1층과 2층이 완만한 경사로 외부로 연결되어 테라스에서 루프탑까지 사선으로 걸으면서 자연친화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건물의 옥상을 즐길 수 있다. "더 다이브" 2층 카페는 넓은 유리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어 호수와 주변 자연을 풍부하게 만끽할 수 있다. 1층에는 공동화장실과 편의점이 있다. 편의점에서는 간단한 휴식과 간식을 즐길 수 있고 좌석도 넉넉히 준비되어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커다란 곰 인형으로 포토존까지 마련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오늘은 특별히 호수에서 오리 한 마리가 편의점에 무엇을 사러 왔는지 서성이고 있어 아이들이 한참 동안 오리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신선한 웃음을 안겨 주었다. 오리와의 짧은 만남은 우리에게 특별한 순간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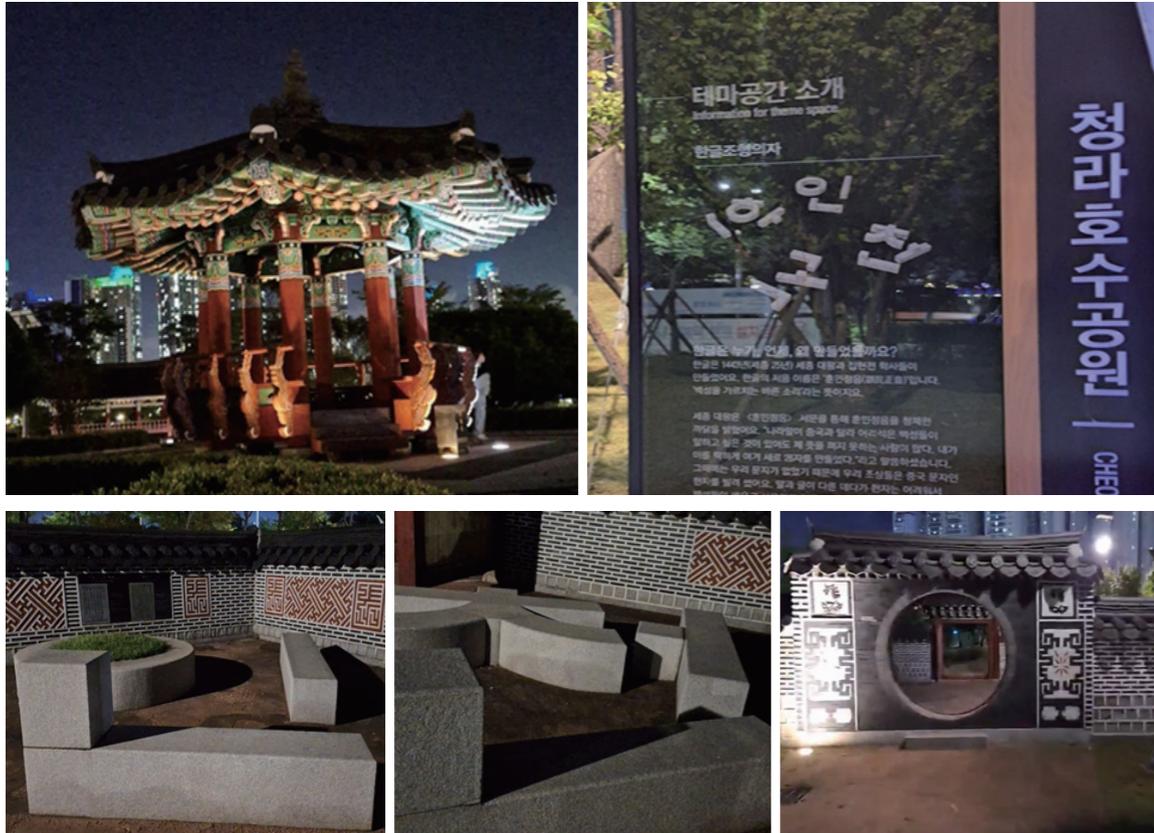


수상레저 체험



호수와 연결해 수상레저를 즐기도록 근처에 체험시설을 마련해 놓았다. 마린워터 테마파크에서는 백조보트, 범버보트, 페달보트, 바스켓보트, 페달카약, 카약, 조정보드 체험이 가능하다. 주말과 특정기간만 운영되니 알아보고 가야한다.

○
청라 한국 정원



"더 다이브" 2층 카페에서 자전거 길을 건너면 한국식 정원이 200미터 정도 길게 연결되어 있다. 아이들은 마치 과거로 여행이라도 떠난 것처럼 동그란 기와 문을 지나 향아리도 열어보고, 문고리도 두들겨 보면서 무한한 상상력과 탐구 정신을 발휘한다.

아름다운 한국 정원을 걷다 보면 한글 조형 의자가 있는 테마공간이 나온다. 한옥에 둘러싸인 한글 조형 의자는 한국 문화와 언어를 대표하는 예술 작품이다. 한글 조형의자는 '한 국 인 천' 4개의 글자를 의자로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이들은 한 글자 한 글자 자음과 모음을 건너뛰며, 무슨 글자 인지 맞춰보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청라에 착륙한 달과 토끼



포즈를 취하는 아이들



소나무 아래 달과 토끼

청라에 착륙한 달과 토끼

청라루에서 오른쪽으로 발길을 돌려 50미터쯤 걸어가면 동화의 한 장면이 커다란 소나무 아래 숨어있다. 청라에 착륙한 달과 토끼 5마리는 동심 가득 상상력을 더해 준다. 옥토끼는 달 속에 산다는 전설의 토끼이다. 청라의 풍요로움과 희망을 기원하기 위해 달과 함께 청라의 호수공원에 자리를 잡았다. 달과 토끼는 청라의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아이들도 멋진 포즈로 달과 옥토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청라호수공원 일정을 마쳤다.

2023년 서구기록사업

2023년 가을, 인천 서구 청라 호수공원

06

채효영
레이크하우스

•

인천청라호수공원의 현대와 과거가 함께
공존하는 쉼터 <레이크하우스> 방문기



인천청라호수공원의 현대와 과거가 함께 공존하는 쉼터 <레이크하우스> 방문기

청라호수공원은 청라국제도시의 한가운데 있는 수변공원으로 청라도시 가운데를 동과 서로 가로질러 흐르는 인공하천의 물길을 따라 커널웨이 연결이 되는 공간이다. 청라라는 지역은 인천서구의 간척사업이 진행되기 전 섬이었던 '청라도(菁蘿島)'의 지명에서 유래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의 계획도시를 상징하는 인천의 랜드마크로 '송도국제도시'와 함께 발전해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레이크하우스 3층에서 바라본 청라호수공원의 파노라마 뷰

이곳의 호수물길은 자연하천인 공촌천과 심곡천에 연결되어 다양한 생태공간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지며 발전하고 있다. 전시회와 축제 등이 벌어지는 곳으로, 드라마 '도깨비'와 '닥터스', 그리고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청라'는 인천 서구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도시로서 유명한 지역이다. 그렇지만 주거지로서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태, 환경을 함께 고민하면서 균형을 잡아나가는 지역으로도 가치가 빛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청라호수공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레이크하우스'와 같은 건축물을 통해서도 이러한 취지와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촬영지로도 유명해진 청라루

청라호수공원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레이크하우스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으로 더욱 유명하다. 레이크하우스는 청라호수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주차장에서 도보로 2분이면 도착한다.



레이크하우스와 가장 접근성이 좋은 '청라호수공원 제1주차장' 입구

청라호수공원은 공원 전체적으로 현대의 기술과 과거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공간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고층 아파트와 같은 마천루의 시원시원함과 함께 단청과 기와로 연결되어 돌담이나 정자와 같은 건축조형이 하나의 그림처럼 멋스럽게 들어서 있다.



청라호수공원은 현대의 멋 과 전통의 미 가 함께 어우러진 곳이 많이 있다.

레이크하우스에 다가가다 보면 산책로와 자전거 길을 만날 수 있고,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길을 건너기 전에 작은 석상과 같은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청라호수공원에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은 청라호수공원의 매력을 더해준다.



작은 자전거길 횡단보도 앞에 놓여진 미소가 아름다운 석상의 모습

레이크하우스는 청라에서 대표적인 시민들의 쉼터로서 손색이 없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호수를 단순히 바라보는 경관으로서의 쉼터 뿐만 아니라 호수안으로 다가갈 수 있는 체험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얼핏보면 '오리배' 라고 하는 수상스포츠 이지만 자세히 보면 '오리'가 아니라 '백조' 형상이어서 더욱 재미있다.



레이크하우스에 위치하고 있는 '백조배' 선착장

그리고 호수 곳곳에는 진짜 '오리'가 살고 있는데 오리에게 사료를 주는 즐거운 경험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어서 더욱 특별하다.



수상스포츠를 즐기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오리 가족

다양한 안전장비 시설을 관리하고 안전요원도 상주하고 있으며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안전장비를 갖춰두고 속지사항을 공지해 안전사고를 대비한 시설

유명유원지 혹은 대형 랜드마크를 방문하여야 즐길 수 있는 가족과의 수상스포츠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청라호수공원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곳이다.



한적한 오후 한때의 휴일을 즐길 수 있는 청라호수공원

선착장 옆에 위치하고 있는 레이크하우스의 건물구조는 일반적인 직선구조의 획일적인 건물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는데, 호수의 가장자리 굴곡에 맞추어 건물의 모습이 굴곡진 형태로 건축되어 있으며, 호수의 가장 낮은 지역과 바깥쪽으로 연결되는 높은 지역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호수공원의 외곽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레이크하우스

레이크하우스에는 휴게마루 공간에도 다양한 벤치와 탁자, 파라솔을 비치해 쉬어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놓았다.



레이크하우스 건물안에서 바라본 청라루의 모습

고속도로 휴게소는 상행선과 하행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진입구조인데 이곳 레이크하우스의 동선도 그러하다. 두 개의 산책로가 연장되어 건물을 통과할 수 있고 길은 막힘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완만한 경사로로 이어져 있어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



1층과 3층을 연결하는 청라호수공원 바깥쪽에서 바라본 레이크하우스의 모습

레이크하우스의 연결통로는 조금씩 높이가 높아지면서 호수의 풍광을 한걸음씩 옮길 때 마다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하나의 지붕 안에 있는 건물임은 분명하지만, 다양하게 개방되어 있는 출입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24시간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기에 기능적인 구조를 극대화 시킨 쉼터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산책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바깥쪽 상층과 호수쪽 하층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장애인을 배려한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도 쉽게 배치가 되어 있었고, 고도가 낮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시설을 통해 하층과 상층과의 연결이 용이하게 한 배려도 좋은 점이었다. 그리고 점자 안내도를 통해 건물의 전반적인 위치와 활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점도 이곳 레이크하우스의 가치를 올려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장애인을 배려한 레이크하우스 점자안내도



완만한 외각의 경사로를 통해 누구나 다양한 각도에서의 조망이 가능하다.

1층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간식과 음료, 또는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풍광도 훌륭하다.



편의점 내 시설과 통창으로 조망할 수 있는 호수공원



레이크하우스 1층에서 바라본 청라호수공원

2층에는 다양한 음료와 베이커리를 제공하는 카페도 위치하고 있다. 특히나 청라호수공원에서 느끼는 푸르름의 향기를 카페 안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다.



카페와 편의점이 함께 있어 편한 쉼터 역할을 담당하는 레이크하우스



푸르름 가득한 카페의 인테리어



카페 내부에서도 외부 풍경과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푸른식물들

청라호수공원에서 커피 한 잔으로 맞이하게 될 여유는 바쁜 일상과 속세를 떠나 잠시 유희자적인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청라호수공원의 풍경과 함께하는 커피 한 잔

3층 테라스로 천천히 올라보면 사방으로 탁트인 전망이 마음마저 시원하게 해준다. 다양한 모양의 의자들, 들풀과 꽃들이 반겨주는 멋진 곳이다.



레이크하우스 3층 테라스의 쉼터 공간



레이크하우스 3층 테라스에서 만난 들꽃

청라호수공원에 있는 레이크하우스는 공원 내부의 휴게시설이지만 단순한 쉼터에 그치지 않는다.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잠시나마 일상생활을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산책로와 자전거로를 방해하지 않는 공간과 구조, 다양한 곳에서 접근이 가능한 배치를 통해서 공원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건축물이자 공간이다.

'레이크하우스'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인공 구조물이지만 자연을 끌어들이 인간을 배려한 기능이 빛나는 공간이다.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쉼터인 청라호수공원과 그곳을 대표하는 멋진 건축물이자 편의시설인 '레이크하우스'는 서구의 시민들과 함께 하는 멋진 공간으로서 오래 기억될 것이다.



레이크하우스 3층 테라스에서 바라본 청라호수공원

2023년 서구기록사업

2023년 가을, 인천 서구 청라 호수공원

07

카페 리본을 소개합니다

카페 리본을 소개합니다



카페 리본 인터뷰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한명임이고 나이는 올해 만으로 67세입니다. 청라에 살고 있어요.

Q 카페 리본은 어떤 공간인가요? 카페 리본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카페 리본은 전국, 인천시에서 서구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청라호수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라호수공원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야외공연장 이용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또 실버 바리스타분들이 음료를 만들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카페 리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카페 리본에서 일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청라호수공원에서 운동하다가 이곳을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부담없이 누구나 와서 이야기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보니 실버 바리스타가 참 멋스러워 보이고 이 공간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한 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카페 리본은 인천 서구에 검단점, 연희점, 청라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라점이 아무래도 집과 가깝기도 해서 이곳에 지원하게 되었고 이렇게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Q 카페 리본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10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Q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월별로 오전, 오후 근무가 바뀝니다. 이번 달은 오후에 근무를 해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쉬고 하루 근무하는데 하루에 4시간 내지 4시간 반 정도 일합니다.

보통은 4시간인데 주말이나 하절기에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4시간 반정도 근무합니다.



Q 카페 리본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은 얼마나 근무하셨나요?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은 7년이에요. 인천시청점에서 2년정도 근무하시다가 청라점에서 5년 정도 근무하셨대요.

Q 카페 리본 일을 주변에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하지만 근무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실기시험과 면접도 봐야 되죠. 그리고 이틀 쉬고 하루만 일을 하니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안되고 사이사이에 내 일도 보고 중간에 여행간다고 하면 바뀌서 할 수도 있고 하니 좋아요. 저는 카페 reborn의 이름처럼 '다시 태어나다'라는 문구를 보고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게 되었어요. 이 곳은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Q 가장 자신있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카페 리본의 시그니처 메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카페 리본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면은 라떼인 거 같아요. 손님들도 많이 찾으시는 메뉴예요.

Q 이곳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혹시 단골이나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신가요?

항상 혼자 오시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하루는 하얀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옷에 커피를 흘리셨어요. 커피는 금방 빨지 않으면 잘 안 빠지잖아요. 어르신께서 당황하셔서 제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화장실로 모시고 티셔츠를 벗어서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즉석에서 세제로 빨아서 물기 제거하고 드렸거든요. 너무 고맙다고 제가 비번인 날 오셔서 절 찾으셨더라고요. 다음에 근무하는 날 선물을 사 가지고 오셔서는 너무 고마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뵙는 거 같아서 한 자연스러움이었는데 ... 그 분이 생각나네요.

Q 카페가 청라호수공원 한복판 그것도 야외공연장 안에 위치해 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라호수공원 안에 있어서 좋은 점은 어떤 걸까요? 혹시 일반 고객들이 찾기 어렵진 않나요?

좋은 점은 호수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둘레길에서 운동하시는 분이나 야외공연장에 오신 이용객들이 카페 오실 수 있고 단점은 날씨에 민감하죠. 비가 오거나 날이 좀 흐리면 손님들이 안 오시니 그게 단점이에요.

Q 평소 선생님께선 청라호수공원을 자주 이용하고 계신가요?

네. 남편과 일주일에 한 두 번정도 와요.

Q 일하시면서나 개인적으로 오셔서 야외음악당 공연도 자주 보시나요?

근무를 안 할 때 공연이 있으면 와서 참여도 하고 며칠 전 요가 발표회에도 참여를 했어요.

Q 선생님께서는 서구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서구에 이사 온 지 한 12년 정도 됐어요.

Q 향후 타워가 생긴다면은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당연히 시티타워가 세워져야겠지만 거기에도 카페가 생겨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릴까봐 걱정돼요. 그러나 스카이라운지에 맛있는 식당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Q 혹시 청라가 과거 바다와 갯벌이었던 것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아신다면 그 당시 동네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청라가 원래 바다, 갯벌이었는데 매립해서 도시가 형성됐고 80년대 동아그룹에서 매립할 때 와봤었죠. 원래 고향은 서울인데 인천 중구 관동쪽에 살던 남편을 만나 인천으로 시집오게 되었어요.



Q 마지막으로 카페 리본에 대한 자랑과 홍보 한마디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근무하고 있음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해요.
홈페이지를 보고 송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저기 소문 듣고 오셨다고 하시는 손님들도 계시는데 아직도 카페리본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워요. 카페 리본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카페리본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오시는 곳입니다. 쉼터에 힐링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Q 오늘 인터뷰 하신 소감 한마디해주세요.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청라호수공원과 카페 리본이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서구기록사업」

2023년 가을, 인천 서구 청라 호수공원

발행일 2023년 12월 1일

발행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A.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쓰리엠타워 7층

T. 032-582-4341

F. 0502-582-4742

H. www.insec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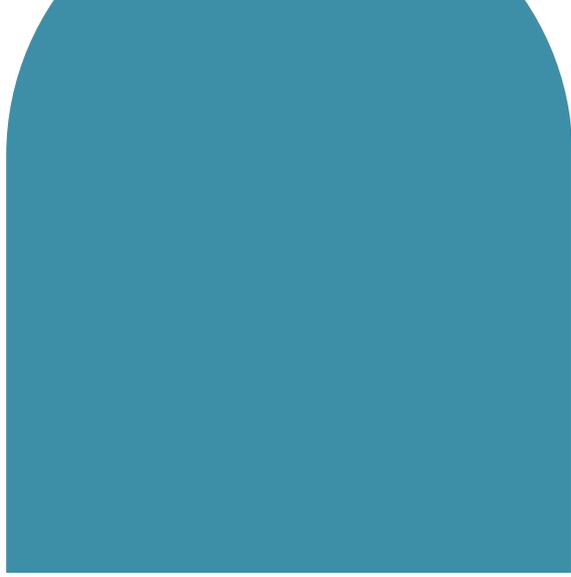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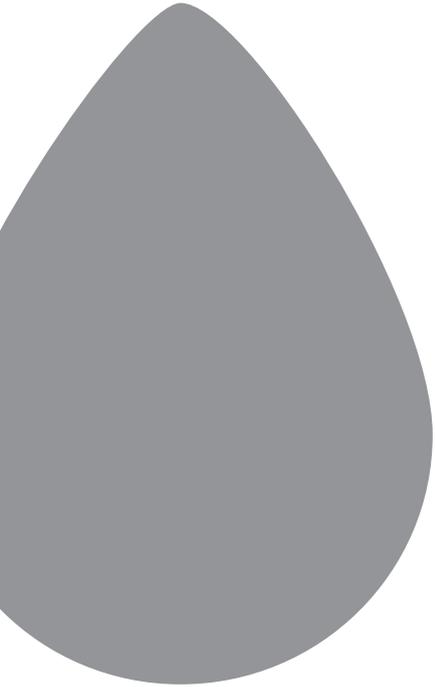
기획총괄 서덕현

기획운영 유지인 정다희

집필 서구기록가 2기 고세자 · YAMADA TAKAKO · 유새늘 · 유현옥 · 이수진 · 채효영

※ 이 책자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담긴 일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